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전문가들, “미 인플레 상향 조정…2분기 3.6% 이란 전쟁 탓”
- YahooFinance: 연준 의장 후보 “인플레 측정 방식 바뀌어야”

[금융]
- CNBC: 한국 개미투자자들, 미 증시 적극 진출... 3위 매수국

[중동 위기]
- Bloomberg: 이란 외무장관,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오늘 도착
- Bloomberg: 미 국방부 장관 “유럽과 아시아는 호르무즈 관련 무임승차” 비판

[에너지]
- Bloomberg: 골드만삭스 “페르시아만 오일 공급은 전쟁전 보다 57% 낮아”
- CNBC: 오일 가격 하락…이란 외무장관 회담 장소 도착 소식에
- Bloomberg: IEA, "천연가스 시장, 향후 2년간 수급 불균형"

[주택]
- Bloomberg： 미 모기지율 3주째 하락…6.2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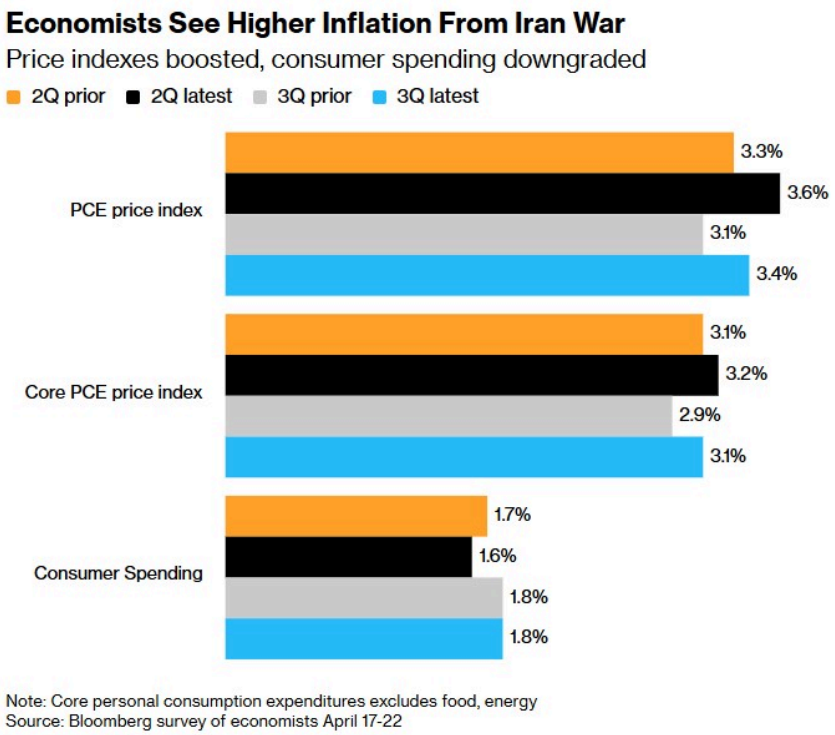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： 메타,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CPU 칩 구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Economists Raise US Inflation Forecasts as Iran War Drags On
이코노미스트들, “미 인플레 상향 조정…2분기 3.6%, 이란 전쟁 탓”

-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,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.
-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는 2분기에 전년 대비 3.6%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, 또 다른 물가 지표 역시 이전 전망치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.
-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더라도, 에너지 생산 시설과 정제 능력이 피해를 입었기에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Warsh says he wants the Fed to adopt a new approach to measuring inflation
연준 의장 후보 “인플레 측정 방식 바꿔야”

- 연준 의장 후보 Kevin Warsh은 연방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(PCE) 지수가 변동성 큰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물가 흐름을 진단하기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.
- 그는 대신 '트리밍 평균(Trimmed Mean)' 활용을 제안했다. 트리밍 평균이란 전체 물가 데이터 중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수치를 없애고 남은 항목들로 산출한 평균을 의미한다. 한마디로 '정제된 물가 지표'라고 할 수 있다.
- 그는 현재 근원 PCE가 3%대에서 상승 중인 것과 달리, 달라스 연준의 트리밍 평균 PCE(2.3%)나 클리블랜드 연준의 중간값 PCE(2.8%)는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. 즉, 이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의 기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분석했다.

기사

[금융]

CNBC: South Korea’s ‘ant investors’ are marching to U.S. equities even as domestic market hits record highs
한국 개미투자자들, 미 증시 적극 진출... 3위 매수국

- 한국 증시가 지난 1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미국 주식에 대한 한국인의 열기는 여전하다.
- 연방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싱가포르, 노르웨이에 이어 미국 주식 매수국 3위에 올랐다.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5배

가까이 늘어난 736억 달러를 순매수했다. 코스피가 작년 75% 수익률을 기록하고 올해 또 고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은 계속됐다.
- 한국은행은 국내 해외 투자 자산 중 미국 비중이 63.4%에 달한다고 밝혔다. 이는 선진국(25.3%)이나 신흥국(36.8%)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.
- 한편 오늘 금요일 미 증시는 미 이란 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로 나스닥은 1% 가까이, S&P 500은 0.4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

기사

[중동 위기]

Bloomberg: Iran Foreign Minister to Visit Islamabad Friday, Pakistan Says
이란 외무장관,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오늘 도착

-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2차 평화 회담을 위해 오늘 금요일 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다.
- 현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협상 준비팀은 이미 현지에 도착해 비공개 회담을 준비 중이다.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.
- 당초 양국은 이번 주 초 회담할 예정이었으나,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며 밴스 부통령의 파견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.
- 현지 미국 대사관은 언급을 거부했고, 이란 대사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.

기사

Bloomberg: Hegseth Accuses Europe, Asia of ‘Freeriding’ Over Hormuz
미 국방부 장관 “유럽과 아시아는 호르무즈 관련 무임승차” 비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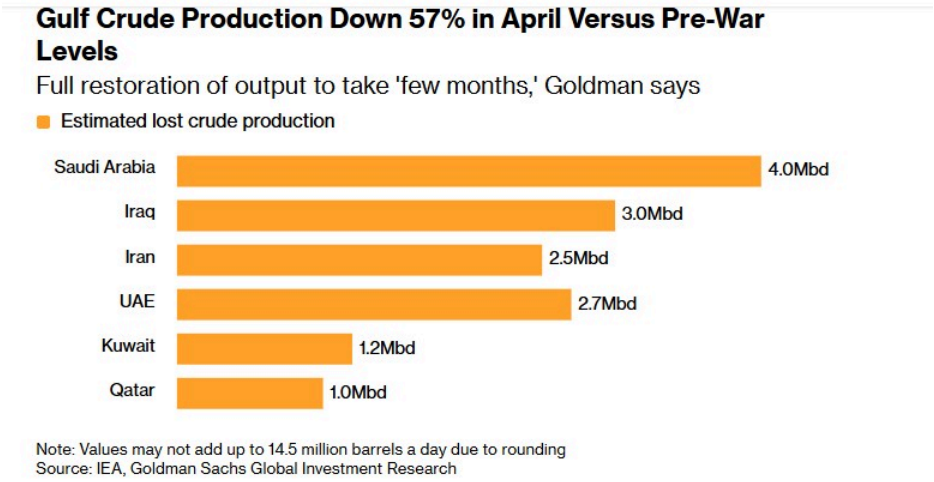
- 미 국방 장관Pete Hegseth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미국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비판하고 나섰다.
- Hegseth는 유럽과 아시아가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이익을 누려왔지만, 이제 이런 '무임승차(freeriding)'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.
-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휴전 요구에 이란이 저항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에 있다. 이로 인해 해협 내 유조선 통행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.

기사

[에너지]

Bloomberg: Goldman Says Persian Gulf Oil Supply 57% Below Pre-War Level
골드만삭스 “페르시아만 오일 공급은 전쟁전 보다 57% 낮아”

- 3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.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이 전쟁 전보다 하루 1천4백50만 배럴이나 급감했다고 분석했지.
- 이는 전쟁 전과 비교해 57%나 낮은 수준이야.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재개방되고 추가 공습이 없다는 전제하에, 생산량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.
- 현재 미국·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로 페르시아만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. 양측이 서로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서 유조선 통행이 끊기 상태다.



기사

CNBC: Oil prices fall on report Iran foreign minister to arrive in Pakistan for peace talks
오일 가격 하락...이란 외무장관 회담 장소 도착 소식에

- 이란 외무장관이 평화 회담을 위해 파키스탄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금요일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.
- 외무 장관이 오늘 금요일 밤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.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.63달러,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4.75달러로 떨어졌다.
- 한편,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백악관 회동을 통해 휴전 기간을 3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. 트럼프는 이번 조치로 외교적 협상 기간을 확보했으며, 미국은 헤즈볼라에 맞선 레바논의 방어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기사

Bloomberg: Iran War to Keep Gas Market Tight for Two More Years, IEA Says
IEA, "천연가스 시장, 향후 2년간 수급 불균형"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중동 분쟁과 인프라 파괴 여파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.
- 중동 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됐던 LNG 공급 과잉 시점은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.
- IEA는 단기적인 공급 차질과 증설 지연이 겹치면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누적된 LNG 부족량이 약 1천2백억 BCM(입방미터)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.

기사

[주택]

Bloomberg: Mortgage Rates in US Fall for Third Week, Dropping to 6.23%
미 모기지율 3주째 하락…6.23%

- 미 모기지 금리가 3주 연속 하락하며 봄철 성수기를 맞은 구매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.
- 주택 기관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 금리 평균은 지난주 6.3%에서 6.23%로 낮아졌다. 이는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등했던 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-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금리 안정에 힘입어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. 전문가들은 지난 3월 금리 상승으로 관망세에 돌아서려던 매수자들이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금리 하락세에 다시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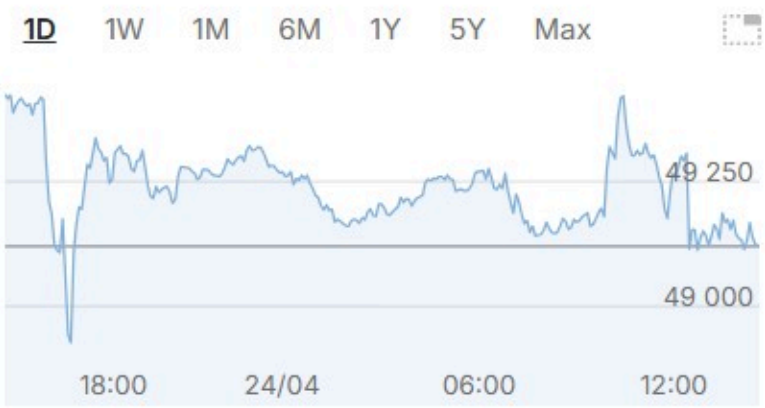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Meta Signs Multibillion-Dollar Deal With Amazon to Use Its CPU Chips for AI
메타,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CPU 칩 구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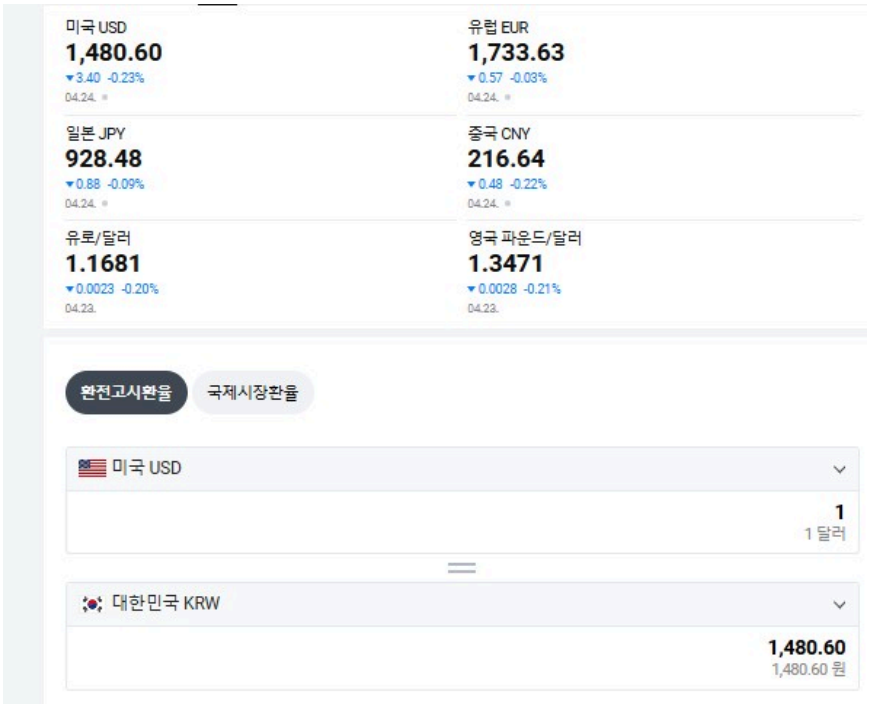
- 메타와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계약을 체결했다. Meta는 자사의 인공지능(AI) 프로젝트를 위해 아마존의 반도체 칩 AWS Graviton 수천만 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.
- 이번 계약은 AI 에어전트 구동과 대형 언어모델(Large Language Model)의 추론 바로 전 단계인 Post-training(사후 학습) 단계에서 CPU 수요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.
- 이번 합의로 Meta는 AWS Graviton의 5대 고객사 중 하나가 되었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]



US 30	49,125.50	-183.8	-0.37%
US 500	7,142.90	+34.6	+0.49%
Dow Jones	49,111.31	-199.01	-0.40%
S&P 500	7,143.20	+34.80	+0.49%
Nasdaq	24,725.69	+287.19	+1.18%
S&P 500 VIX	18.75	-0.56	-2.90%
Dollar Index	98.505	-0.097	-0.10%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